

‘책은 군사력의 원동력’

강군強軍위해 병영독서운동 활성화돼야

‘병영도서관·독서운동 토론회’ … ‘군대 축구 이야기’ 아닌 군대문화 필요

국회 국방위 간사 김성곤 의원은 최근 “국민 절반이 군대를 가는 나라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말고 마땅히 얘기할 만한 군대문화가 과연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세계 최고의 학력(육군 82퍼센트 초대졸 이상)을 자랑한다는 우리군의 문화적 현실을 압축한 표현이다.

이처럼 ‘군대 축구’ 수준을 뛰어넘는 문화적·지적 환경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전군을 대상으로 한 병영도서관 건립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선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선 병영독서운동의 의미와 역할, 이를 위한 민·관·군 차원의 과제 등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특히 김 의원은 “건군 이래 우리 군의 정훈교육은 병사들의 다양한 지적 욕구나 능력을 무시한 채 이루어져 왔다”며 “병사들로 하여금 다양한 지적·문화적 욕구를 발산토록 한다면 군부대 사고방지는 물론이며,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서의 생활화를 가장 유용한 문화적 욕구 충족의 방안으로 들며, 병영도서관의 확충과 지원을 촉구했다.

2004년 현재 전군의 도서관은 모두 29개. 국방부는 2003년 공포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740개의 도서관을 각급 부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도서관설치계획에 따르면 대대급 단위부대당 20평 기준 3,000권 장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육군의 독립대대급과 해군의 독립전대급, 공군의 레이다 사이트 이상 제대에 병영도서관이 설치될 계획이다.

병영도서관 건립운동 가속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계획대로라면 그동안 민간의 한정된 기부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전군의 모든 부대가 수년 내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신간 보급 등으로 명실상부한 도서관 기능을 갖출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병영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조 교수는 “병영독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선 사서의 전문성 결여나 접근성 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지원 건립한 도서관들의 경우 대부분 담당 사서병을 두고 있으나, 전문성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영도서관이

일선 대대급에 설치돼 있어 사단 전체가 활용하지 못하고 인근대대나 파견 중·소대만 혜택을 보는 실정이다.

충분한 신간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지휘관의 개인적 스타일에 독서운동이 좌우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휘관이 앞장 서서 독서관련 이벤트를 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대는 운영·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독서분위기도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특히 “병영도서관 건립운동 과정에서 출판계와 관련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일부 언론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범사회적인 캠페인이나 홍보, 후원 등이 아쉬웠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독서활성화 위해 군 내부 인식전환 외부 지원 절실

김성곤 의원은 무엇보다 ‘군 내부의 인식전환과 자구노력’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병사를 ‘전투 도구’로 여기기보단, 지적·문화적 욕구가 필요한 인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휘관은 휘하의 병사들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휘관 자신과 부대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병영도서관 설치공간을 마련해 군장병과 군인가족들의 정보, 교육, 문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도서관리 전문가를 사서로 군부대에 파견하는 등 병영도서관 관리와 운영을 위한 외부전문단체의 지원과 상호 협조도 강조됐다.

김 의원은 “출판계나 도서관단체가 나서



자료 선정·분류·관리를 지원하거나, 도서관 담당 관리장교 및 사병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체 병영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동도서관이나 순회문고가 인근 부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방법도 제기됐다. 특히 조동성 교수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생 가운데 장교 복무자를 뽑거나 재학생을 특기병으로 선발하는 등의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장의 가장 큰 무기, '책으로 길러진 판단력과 해결능력'

이날 토론회에서 조 교수는 이른바 SER-M-P 모형을 통해 병영독서운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병사 개인의 성공을 위한 주체(self)적 노력과 환경적(environment), 자원적(resource) 변수가 상승하면서 '나눔'이란 메커니즘(M)을 만나 '사회적 발전'이란 성과(Performance)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독서다. 독서를 통해 이같은 선순환적 모형이 구현되고, 순기능적인 '3S' 형 (자기주도형 인간(self leader)과 나눔(share), 만족(satisfaction)) 비전이 이뤄진다.

이런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선 "병영 독서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다채널의 홍보는 물론, 군사력 증진과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는 필수임을 군 내부 인사들에게 설득시켜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단위부대나 전군 차원의 동호회 등 독서모임과 각 지역별 병영독서후원회 조직 등 범사회적인 지원이 병행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군인이 책을 읽으면 군사력이 증가하고,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병영독서운동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라크전 등 현대의 전장이 입증하듯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도 생명을 보충할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상황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이라고 강조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책이란 얘기다.

조 교수는 특히 "독서로 길러진 판단력과 사고력은 비단 전시상황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다"며 "급변하는 시대, 선택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은 그들을 더욱 자신감 넘치는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병영독서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민**

출판저널 편집부



미군美軍은... 미군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병영도서관이 널리 확산돼 왔다. 특히 2차대전 후 군의 사기양양·복지향상·레크리에이션 지원이란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병영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litary Library', 'Army Library' 등으로 불리거나, 3군을 통칭하는 'Force Library'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방부 내에 병영도서관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고, 군 근무부대별 특수근무부과의 도서관계가 지휘·감독부서 라인에 있다. 현재 국방부 등록 병영도서관은 260여 개에 달하며, 주한미군도 22개의 병영도서관을 두고 있다. 지난 1953년 이후 미 특수도서관협회의 '병영도서관사서분과'와 미 도서관협회의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이 이들 병영도서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전 세계의 병영도서관을 인터넷상의 전자도서관으로 구축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rmy Library Program(ALP)나 영국의 Army Library Services(ALiS)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주한미군의 병영도서관은 책을 나르기 위해 한국의 지게를 응용한 L자형 등짐판(Pack-Board)을 개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아전에 도서를 보급하는 유용한 도구로 세계 각국 주둔지에 확산됐다.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송승섭 연구위원은 "미군의 병영도서관은 개인과 주둔지 부대원 모두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전시에는 해외 주둔 병사 또는 군인가족들과 본국을 문화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소개했다.

발해 '미국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과정'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송승섭 연구위원>